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이수화씨

차장에 유갑희씨, 농산물안전성부장에 김진화씨

신 임 농촌진흥청장에 이수화 산림청 차장(53)이 임명됐다. 또 차장에는 유갑희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장이, 농산물안전성부장에는 김진화 전 호남농업연구소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수화 청장



유갑희 차장

폐금융분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부인 신지애 여사(50)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또 지난 3월 25일 임명된 유갑희 신임 차장은 강원도 춘천 출생으로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서울대학교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 농진청 연구관리국 연구기획과장,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농산물과 식품 안전성 분야의 기술발전에 이바지 했다.

한편 지난 3월 27일에는 공석이 된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장에 김진화 호남농업연구소장이 선임됐다.

지난 3월 7일 임명된 이수화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1977년 농림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식량정책과장, 농업통계정보관, 주미대사관 참사관, 식량정책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가이며 식량·금융·협상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미국 미주리대에서 화

경농, 간편한 투척형제초제 ‘매치업’ 출시

NEP인증받은 자기발포확산형 신제품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논잡초약 ‘매치업 점보제’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매치업 점보제’는 지난 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신기술제품 인증(NEP)을 획득한 자기발포 확산형 제품으로 논둑에서 제품을 직접 투척함

으로써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새

로운 개념의 논잡초약이다.

예를 들어, 4000㎡(1200평)의 논을 기존 입제 제형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12kg의 입제를 논안에 직접 들어가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시간은 약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만약 논둑에서 입제살포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 10kg의 살포기 무게를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농에서 출시한 ‘매치업 점보제’는 500g 4봉(20개/봉)을 논둑에서 논 안으로 던지기만 하면 되므로 작업자의 시간과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입제를 살포할 경우 비산에 의해 약제

영일케미컬, 신임 사장에 강성국씨

(주)영일 케미컬 신임 사장에 강성국(姜聲國 · 63) 전 남해화학(주) 감사가 지난 3월 21일 취임했다.

이번에 취임한 신임 姜사장은 1945년 경북 영주 태생으로 영주농고를 졸업한 이후 평은농업협동조합장, 농협약용작물협의회 전국협의회장, 농협개혁위원회 위원, 농협통상위원회 위원장, 농협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05년 3월부터 남해화



강성국 사장

학(주) 감사를 역임해 왔다.

姜사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사장으로 취임한 기쁨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책임감이 더 앞선다”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속에 영일을 심겠다.”고 소감을 밝힌 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추진, 농업인 중심 경영, 우수 신농약 개발, 역동적인 조직문화 정착, 상생의 노사관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를 흡입하거나, 수용성액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 한 곳으로 몰리는 단점이 있으나 ‘매치업 점보제’는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아 벼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조비·경농, 시비관리 국제세미나 개최



국내 농업업계의 대표회사인 (주)조비(대표이사 이병일)와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토양관리와 시비관리기술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조비와 경농은 일본의 비료전문회사 썬아그로와 함께 지난 3월 5일과 10일, 1박2일씩 두 차례에 걸쳐

「국제 품질향상 전문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진 토양관리기술과 시비관리기술을 소개했다.

총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는 선문대학교 황인태 교수의 <농업경영인과 위기관리능력 향상> 특강을 시작으로 <과수류 토양관리 및 시비기술>, <채소류 토양관리 및 시비기술>, <우수비료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둘째날에는 일본 썬아그로나카무라 연구원의 <일본의 선진 시비관리 기술> <우수비료 치요다 성공사례> 특강이 계속되었다.

일본 썬아그로의 나카무라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효과적인 시비관리로 동시에 토양관리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고활성 중성비료 치요다 비료는 우수한 효과는 물론 토양보호효과까지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신젠타, 신제품 초기제초제 ‘다정토’ 출시

신젠타 코리아(대표이사 김용환)가 새로운 제초제 물질인 메소트리온이 함유되어 있어 일년생 저항성 및 화분과 잡초에 효과가 탁월한 신제품 ‘다정

신젠타, 아그로후레쉬와 'Invinsa' 전략적 제휴 체결

신젠타 코리아(주)(대표이사 김용환)와 롬앤하스의 자회사인 아그로후레쉬(AgroFresh)가 노지작물의 스트레스를 보호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이 담긴 제품 'Invinsa'를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상업화 하는데 합의했다.

이번에 맺은 'Invinsa'는 고온 또는 한발과 유사한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작물을 보호하여 증수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며 많은 지역에서 가뭄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식량 및 사료, 연료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작물 생산의 최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5,000억원 이상의 잠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젠타측은 “이번 전략적 제휴는 옥수수, 콩, 목화, 밀, 해바라기, 쌀과 유채를 포함한 주요 노지 작물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기존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에 잠재력을 가지는 Invinsa기술은 고객과 주주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 줄 것이며 작물 스트레스 보호 시장에 출시 속도를 빠르게 하여 2년 안에 상업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젠타는 Invinsa기술이 최근 몇 년간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이상 기후에 의한 국내 주요 농산물의 품질 및 수확량 감소를 해결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한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토'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 '다정토'는 이앙 초기에 단 1회 살포로서 문제되는 설퍼닐우레아계 저항성 잡초인 물달개비와 울챙이고랭이, 알방동사니,

마디꽃 등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으며 또한 잔효력이 우수하여 저항성 잡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중기제초제와 체계처리 시 추가 살포의 노동력과 경비를 절감 할 수 있다. 벼 이앙 후 5-7일 수면살포 하며 1,000㎡당 1.5kg을 사용하면 된다 <무료 상담 전화 : 080-900-1114>.

신젠타, 잡초 해결사 「모뉴먼트」 출시

신젠타 코리아(주)(대표이사 김용환)가 잔디 잡초 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모뉴먼트」를 출시했다. 락스 문제 잡초에 효과적인 「모뉴먼트」는 발아 후 제초 효과뿐만 아니라 발아 전 예방 효과가 우수하고 적은 양으로도 긴 지속 효과를 나타내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경제적이면서도 깨끗하게 잔디를 보호하는 새로운 해결사이다.

묘지에는 연중 사용이 가나 특히 한식을 전후하여 처리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일반 한국 잔디는 예초



성보화학, 수도용 ‘한소네’ 입제 출시

성보 화학(주)(대표이사 박종영)가 새로

운 개념의 살균·살충제인 ‘한소네 입제’를 출시하고 본격 시장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한 ‘한소네’는 스트로빌루린 계통의 살균제인 오리사스트로빈과 네오니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 클로티아니딘의 혼합제이다.

바스프사에서 개발한 살균 성분인 오리사스트로빈은 동화작용의 촉진, 에틸렌 생성 억제, 질소 이용 효율 증가를 통해 벼의 생육을 촉진하고 수량증수 효



과를 보인다. 또 클로티아니딘은 스미토모사에서 개발한 약제로서 현재 수도 및 원예용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작에서는 벼물바구미, 애멸구, 벼잎벌레, 이화명나방 1화기 등의 초기해충을 우수하게 방제할 수 있다.

한소네입제는 기존약제와 달리 육묘상처리에 있어서 파종시부터 이앙 당일까지 사용 가능한 살균·살충제로서 벼에 매우 안전한 약제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진 약제이다.

후 처리하면 효과가 좋으며 썩, 토끼풀, 망초 등 광엽 잡초에 대한 제초 효과 및 발아 전 예방 효과, 띠, 피, 새포아풀, 비랭이, 방동사니, 강아지풀 등 화본과와 사초과에 대한 제초효과 및 발아 전 예방효과가 뛰어나다(무료 상담 전화 : 080-900-1114).

할 수 있으며,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아직후에 사용하면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영일케미컬측은 “이 제품은 특히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것을 효로 여기는 우리의 미풍양속에도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영일케미컬, 산소용 ‘산소로’ 출시

(주)영일케미컬(대표이사 강성국)이 산소 및 잔디밭에서 발생하는 잡초방제용으로 신제품 ‘산소로 입제’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산소로 입제’는 물 없이 용기 그대로 살포하는 간편한 입제형태의 제초제로 한국형 잔디의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이다. 500g 한 병으로 약 82㎡를 처리



인사

- (주)동방아그로 <승진> △기획팀장 상무이사 강보경
-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승진> △누빔사업부 이진만 이사 △경북영업팀 유광태 이사 △필드마케팅팀 정준기 이사 △전남영업팀 문경주 부장 △경남영업팀 임정섭 부장 △전라 마케팅팀 김성민 부장 △필드마케팅팀 박수완 부장 △영업관리팀 김종식 부장 △수요 기획팀 석근호 부장 △사업관리팀 천성범 부장
- 동양제철화학(주) <전보> △사업2본부 상무부 송덕종 △가스제사업팀 부장 천문석 △ " 차장 변용구